

# 권위와 질서를 주신 분

## ◎ 본문말씀: 로마서 13:1-7

1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3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5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6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7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 ◎ 관찰하기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모든 권세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는 한 권세에 순종해야 하고, 국가가 부여한 의무에도 충실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이 나라의 국민이고, 보이는 국가에 충성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바울이 권세들에 복종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1절) 권세에 대항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를 거스르는 것과 같나요?(2절)

2. 바울은 권세자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4절) 무엇 때문에 이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나요? (5절)

## ◎ 답아가기

나는 부모님, 선생님, 정치인 등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을 괜히 빼돌려진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나요? 이제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대할까요?